

고흥군 작은섬 무인화 방지 팔 걷었다

행안부 공도 방지 사업 4곳 선정 국비 19억 6000만원 등 28억 확보 방파제·도로 정비 정주 기반 확충

고흥군이 작은섬의 무인화를 막기 위해 인간편을 쏟고 있다. 고흥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작은 섬 공도 방지 사업'에 대옥대도 등 4개 지구가 선정돼 국비 19억 6000만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2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작은 섬 공도 방지사업은 열악한 생활 환경으로

무인화 위기에 처한 작은 섬의 소멸을 막기 위해 정부가 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지원하고, 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생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고흥군의 지난 4월 인구는 6만 1618명으로 3월 6만 1615명에 비해 3명 늘었다. 군은 고흥군 인구가 몇명이나 증가한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달 귀농·귀촌인 등 전입 인구가 전출인구에 비해 61명 늘어난 것이 인구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군은 지난해 10월 읍면 수요조사서 거쳐 행안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어 지난 3월 사업신청 대상지 현장확인 등 심사를 거쳐 올해 사업 대

상지로 4개 유인도가 확정됐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4개 지구는 ▲영남면 대옥대도 ▲봉래면 수락도 ▲과역면 진지내도 ▲포두면 침도 등이다. 군은 사업비를 투입해 관정 개발, 부잔교 설치, 방파제 연장, 도로 정비 등 주민 정주기반 확충을 위한 생활 기반시설을 갖춰나갈 예정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작은 섬 공도 방지사업이 완료되면 그간 접안시설, 생활용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던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상당수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여수시 월호동 봉양마을·신근마을 주민들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해안로를 무지개 일곱 빛깔로 꾸미고 있다. <여수시 제공>

여수 신월 해안로 '무지개색 힐링로드' 단장

방호벽·담벼락 일곱 빛깔로 꾸며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염원을 담아 '신월 해안로' 방호벽이 무지개 일곱 빛깔로 꾸며졌다. 여수시는 월호동 봉양마을·신근마을 주민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신월 해안로 방호벽을 '무지개색 오션뷰 힐링로드'로 새롭게 단장했다고 9일

밝혔다. 담벼락에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캐릭터와 알록달록 무지개 등이 들어갔다. '여수시 월호동은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마을 공동체 사업 대상에 선정돼 방호벽 꾸미기를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방호벽에 사진 촬영을 위한 공간을 꾸몄다. 마을 담장 꾸미기는 생감마을에서도 추진될 예정이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순천만정원박람회 반려견 무료 돌봄 서비스 인기

한달여만에 1149마리 이용 만족도·재방문 의사 100%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무료로 운영하는 '반려견 돌봄'을 가장 한 달여 만에 1025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돌봄 서비스를 받은 반려견은 총 1149마리이다. '반려견 돌봄'은 전국 관광지 가운데 처음 도입됐다. 전문 직원이 상주하며 반려견을 대상으로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순천시가 반려견 돌봄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벌여보니 만족도가 100%에 달했다. 또 반려견 돌봄을 이용하고 싶다는 재방문 의사도 100%로 집계됐다. 예약 시스템 만족도는 98.3%, 직원 친절도는 99.4% 등으로 나타났다. 순천시는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지난 5일부터 하루 이용 시간을 기존 3시간에서 4시간으로 1시간 늘렸다. 반려견 돌봄 만족도가 높은 데는 돌봄을 받는 반려견 사진과 영상을 이용객에게 보내주는 서비스가 한몫했다. 이외에도 반려 가족 사진 촬영, 강아질 발바닥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는 순천만국가정원에서는 관람객의 반려견을 무료로 돌봐주는 '반려견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가꾸기, 소셜미디어(SNS) 추천 행사 등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반려견 무료 돌봄서비스는 순천시가 제시하는 대한민국 새로운 표준 중

하나"라며 "지속적인 반려동물 시책 추진으로 사람과 자연,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내달 10일 '지리산 대화염사 요가대축제'

세계 요가의 날을 맞아 천년고찰 화엄사에서 요가대축제가 열린다. 대한불교조계종 19교구 본사 지리산 대화염사는 다음 달 10일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 각황전 앞 마당에서 '제3회 지리산 대화염사 요가대축제'의 막을 올린다고 밝혔다. 9일부터 화엄사 누리집을 통해 전국의 신청자 5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인도 대사관과 국내 거주 인도인, 요가인들이 참여한다. 인도문화원 요가팀, 대한요가회 시범팀의 해금과 가야금 연주에 맞춰 특별 순서가 펼쳐지며 리듬체조 국가대표 손지인 선수가 리듬체조 공연을 선보인다. 요가 행사 후에는 관악 4종주에 맞춰 서로 다짐을 인장하고 화합하자는 의미의 양산 퍼포먼스로 대미를 장식한다.



지난해 지리산 대화염사 요가대축제 모습.

지난해까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도시락을 제공했으나 올해는 참가자들에게 사찰 요리 체험을 운영할 예정이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곡성군, 귀농·귀촌인 농기계 이용 기술 교육

작동·정비·안전사고 예방 실습

곡성군이 최근 신규농업인과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예취기와 엔진톱 실습교육 등 농기계 현장 이용 기술 교육을 시행했다. <사진> 농작업에 사용되는 경운기, 관리기, 트랙터 등 농기계들의 기초적인 작동원리와 조작 방법, 안전사고 예방의 이론교육과 자가 정비·점검, 농작업 실습으로 진행됐다.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용법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 실시됐다.

농업인들 스스로 기본적인 점검과 정비를 수행하며 간단한 고장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용 방법, 보관요령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이 포함돼 있다. 곡성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기계 안전 사용 및 기술교육이 필요한 농업인에 교육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대농업기계 사용을 위해 방문할 경우 1:1 맞춤 교육을 실시하며 농업기계 안전사용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kwangju.co.kr



광양시 가족센터 이주여성 취업 지원 설명회

50여명 참석 한국어 학습법도 소개 광양시가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 여성의 정착을 위해 취업 지원에 나선다. 광양시 가족센터는 최근 결혼 이주 여성 50여 명을 대상으로 '결혼 이민자 취업 지원 사업설명회'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광양시 가족센터에 따르면 광양지역에는 1020명의 결혼 이주 여성이 거주하고 있다. 베트남 출신 다문화 가정이 350가구, 중국 출신 320가구, 필리핀 110가구, 일본 60가구 등으로 나타났다.

광양시 가족센터는 사업설명회에서 결혼 이민자 취업 지원 사업 목적과 교육 내용, 결혼이민자를 위한 취업 지원 제도 등을 설명했다. 또 한국어를 학습하기 위한 학습 방법도 소개했다. 광양시 가족센터는 결혼 이민자 취업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취업 소양 교육을 벌인다. 피부관리사, 제과 기능사, 요양보호사 자격증반 등을 운영하고 가족센터와 활동을 함께 하는 서포터즈도 꾸린다. 광양시 가족센터는 결혼 이민자 취업을 돕기 위한 '어울림부엌'과 '가족애(愛)뜰' 교육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마향로 903-6(오목리9)